

[경제]

내달부터 아파트 건설 '단품슬라이딩제' 도입

건자재값 급등때 분양가 오른다

다음달부터는 철근이나 레미콘 등 특정 건자재값이 급등할 경우 가격 상승분이 아파트 분양가에 즉시 반영된다.

또 우수 건설업체가 짓는 주택은 지상층건축비의 1%가 분양가에 추가되는 등 미분양 적체와 건자재값 급등으로 인한 주택건설업체의 부담이 다소나마 줄게 됐다.

29일 국토해양부는 철근과 레미콘 등 건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오는 6월부터 '단품슬라이딩제'도 도입, 실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단품슬라이딩제'는 특정 건자재값이 15% 이상 될 경우 가격 상승분을 분양가에 즉시 반영하는 제도다. 그동안 건자재값은 6개월마다 건축비에 반영됐다는 점에서 향후 건축비와 현실 분양가격간 격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행 건축비는 3월1일부터 적용되고 있어 6개월이 지난 9월1일자로 재조정하는 게 기본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달 말에 15%

이상 가격이 오른 품목을 건축비에 반영하기로 했다.

대상 품목은 철근, 레미콘, PHC파일, 동관 등 4개 품목(46개 세부품목)으로, 이들 품목은 기본형건축비에서 각각 1%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는 소비자만족도가 높은 우수 건설업체의 경우 분양가를 일정 수준 올릴 수 있게 된다.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9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을 하는 주택에 대해 지상층건축비

의 1%를 분양가에 추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주택 건설업체의 소비자만족도 평가 신청을 받고 있다. 이어 6월부터는 입주자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해 8월중 신청업체 가운데 최대 10%를 우수업체로 선정할 예정이다.

또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9월부터 분양가가 오른다. 국토부는 일반 아파트보다 많은 공사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감안해 9월부터 가산비를 올려 줄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가 분양가인상 요인을 점진적으

로 내놓음에 따라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분양물량이나 건자재값 변동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각종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분양가상한제는 지난해 9월 도입 이후 9개월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상한제 주택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제도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체들의 조기분양이 잇따르면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의 주된 요인이 되기도 했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돈 없으면 건강도 못지켜

소득격차 따른 건강불평등 심화

우리 국민의 소득과 건강수준의 비례정도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보건사회연구원 신홍성·김동진 연구원은 한국예방의학회지(5월호)에 발표한 'EuroQol-5 Dimension 건강가치지수를 이용한 한국인 건강수준의 형평성 측정' 논문을 통해 이같은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고 29일 밝혔다. 논문은 1998년과 2001년,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토대로 국민 건강수준 불평등 정도를 측정한 결과 1998년 이후 소득이 높을수록 건강수준이 높아지고 소득이 낮으면 건강수준도 비례해 낮아져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 건강 불평등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특히 건강 불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결과 불평등의 직접적 요인 가운데 30%는 소득격차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논문은 밝혔다.

성별요인으로 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건강수준이 낮았고, 지역적으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일수록 건강불평등 지수가 높았다.

/연합뉴스



선글라스 20~50% 할인판매

광주신세계백화점 선글라스 매장은 30일부터 6월1일까지 '선글라스 특집전'을 열어 남녀 선글라스를 20~50% 할인가에 판매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초코송이 500원 → 600원

빙과류는 200원씩 올라

과자·스낵류 15~20% ↑

서민 먹을거리도 '빨간불'

고유가, 원자재값 상승으로 먹거리 제품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고 철강제품 가격도 들먹거리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고)유가에 맞물린 물류비 증가 등에 더해 밀가루값 등 원재료값 상승에 영향을 받은 과자·스낵·아이스크림·음료·위스키 등 주요 식품값이 잇따라 뛰고 있다.

밀가루값 상승에 따른 과자·스낵류 물류폭이 커지고 있다. 최근들어 오로인 '초코송이'와 '초코칩쿠키'가 각각 500원에서 600원, 1천원에서 1천200원으로 올랐다.

라면값도 이미 크게 뛰었다. 제조사의 공급가 인상 여파에 대형마트의 유통마진 확대가 맞물려 지난 2월 2천600원 하던 농심 신라면 120g 5개 짜리 묶음 제품이 이날 현재 3천원 안팎으로 올라 증가율이 15.4%를 상회하고 있다.

물류·재료비 인상 여파 ... 철강 제품값도 '들먹'

용량이 증가폭보다는 가격 인상폭을 더 키우는 방식으로 사실상 값을 올린 제품도 있으며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종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격인상을 시도하는 사례도 많다.

빙과류 오름세도 간단치 않은 흐름이다. 빙그레는 이달들어 생과랑과 키위아자·캔디바 등 바 제품가격을 500원에서 700원으로 올렸으며 지난달에는 요맘때·메로나·비비빅 등 유아방 함량이 높은 소프트바 제품가격을 역시 5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했다. 빙그레는 올해 초 아이스크림 제품 1천원에서 1천200원으로, 참봉어싸만코와 빵도아는 각각 800원에서 1천원으로 올린 바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2~3월 탄산음료와 주스 등 15개 제품 가격을 평균 7% 가량 인상했다. 해태음료 역시 3월까지 썬키스트·후레쉬

담양·화순·장성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내일부터 ... 주민불편 해소

담양군과 화순군, 장성군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오는 31일부터 해제된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5월 30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허가구역 재지정 과 관련해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지역을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허가구역이 해제됐다.

이번 조치는 이들 지역의 땅값이 안정되고 지역 여건상 투기 우려가 적다고 판단된 데다 장기간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다. 전남도는 허가구역 해제로 당분간 토지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군과 합동으로 부동산 거래 및 투기동향을 중점 감시하고 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이와 달리 개발사업 등으로 토지시장 불안 요인이 상존해 있는 나주시 개발제한구역(39,56km)은 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9개 시·군 1천986km로 도 전체 면적 1만2천121km의 16.4%에 이른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손보·생보 동시 가입

금융위 8월부터 허용

올해 8월 말부터 동일한 보험설계사로부터 생명보험상품과 손해보험상품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개정 보험업법에 따라 예정대로 8월30일부터 보험설계사가 생보 및 손보 상품을 동시에 판매할 수 있는 교차모집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2006년 8월 시행될 예정이었던 교차모집제도는 전문성부족, 불완전판매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올해 8월로 2년간 연기됐다.

금융위는 보험 고객에게 윈윈 서비스를 제공하고 설계사의 소득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논란이 됐던 교차모집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으며 모집질서 혼란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품설명서제도 및 모집자실명제도 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납세자 신뢰도 조사

광주지방국세청 2위

생산성본부, 전국 107곳 평가 ... 정읍세무서 1위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기주)이 국세청에 대한 납세자의 종합신뢰도에서 100점 만점에 66점을 얻어 대전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또 전국 107개 일선 세무서 중에는 광주국세청 산하 정읍세무서가 73.7점으로 1위에 올랐다.

국세청이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해 지난 3월31일부터 5월16일까지 지난해 국제행정 경험을 겸한 개인 및 법인 250명을 대상으로 '납세자 신뢰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기관별 평가에서는 지방청 가운데 대전지방국세청이 69점으로 1위였고 이어 ▲광주청·대구청(각 66점) ▲부산청(64점) ▲충부청(63점) ▲서울청(62점) 순이었다.

또 전국 107개 세무서 중에는 정읍세무서가 73.7점으로 1위, 공주세무서가 73.5점으로 2위인 반면, 속초세무서는 46.1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납세자들은 신뢰도가 가장 높은 분야를 묻는 질문에 ▲민원업무(69.4점) ▲세정지원(68.6점) ▲신고업무(68.1점) ▲세무조사(65.9점) ▲자료처리(65.7점) 순으로 꼽았다. 반면 채납처분(59.7점)과 고충처리(54.5점)에 대한 신뢰도는 60점에 미달했고 특히 과세불복 관련업무 신뢰도가 46.3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하반기 성장률 전망치 낮춰

삼성경제연, 4.6% → 3.8%

삼성경제연구소는 29일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4.6%에서 3.8%로 대폭 낮췄다.

다만 상반기 성장률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 연간 성장률은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연구소는 이날 발표한 '2008년 하반기 세계경제 진단 및 국내경제 전망'에서 경제 성장률이 올해 상반기는 5.5%, 하반기는 3.8%로 연간 4.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전망에 비해 상반기는 0.3%포인트 올랐지만 하반기는 0.8%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연구소는 "상반기에는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가 지속해 경기가 완만하게 하강하겠지만 하반기에는 수출이 둔화하고 내수 회복도 지연돼 경제성장률이 3.8%로 급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분기별 성장률도 1분기 5.7%, 2분기 5.3%, 3분기 4.0%, 4분기 3.6%로 경기가 빠르게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 적자 폭은 기존 51억 달러에서 91억 달러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이 하반기부터 둔화하고 고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분석한 데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주)빅마트	[시안캘러리] 어시스턴트 (미대졸업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30	062-650-2203
건도기업(주)	시설관리(전기,소방)직 경력사원	고졸/경력1년	1800~2000	05/31	062-523-0235
(주)한진디엔비	건설기계 설계, 제작/CNC조작원/경리,회계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6/01	062-953-4510
(주)컴스쿨	[광주/전남] 정규직 초·중·고교 특기적성 교사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01	062-367-1150
(주)한영정보통신	SK텔레콤 대리점 정규직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6/02	062-251-6972
ING생명(본사)	[본사직영] TM고객상담원/주거연계출산-월300만이상	고졸/경력무관	3400~3600	06/02	02-3452-2612
(주)화인테크	인테리어 시공 현장 관리직	초대졸/경력2년	1800~2000	06/02	062-521-4567
27년(주)	경리 및 금전출납 관리 경력직	고졸/경력3년	1400~1600	06/02	062-972-5254
엔제리너스	직원(매장관리 및 비리스타) 및 이비라이프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04	062-385-1906
남광건설(주)	건축시공기술자(공사관리,공사무관리)	대졸/경력2년	2400~2600	06/05	062-606-6630
신한포토닉스(주)	팬데믹연구연구소 연구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05	062-949-7210
성수기업(주)	경리, 사무업무 여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000~1200	06/07	062-973-1341
(주)삼성테크	자동차 시트 조립 생산직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07	062-381-0360
(주)한국케이블TV전남동부방송	보도제작 팀장 (방송기자, 방송제작, 뉴스제작)	대졸/경력5년	회사내규	06/07	061-729-1013

(광주광역지역 512-6210 제공)

우리금융 회장 이팔성씨 내정

국내 최대 금융그룹인 우리금융그룹의 차기 회장 후보로 이팔성(사진) 서울시장 대표가 내정됐다.

우리금융 회장추천위원회(회장추위)는 2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 대표를 우리금융 회장 단독 후보로 발표했다. 7인의 회추위 만장일치로 회장 후보가 된 이 내정자는 다음달 말 이사와와 주장을 거쳐 회장으로 공식 선임된다.

이 내정자는 경남 하동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지난 1967년 우리은행의 전신인 한일은행에 입행한 이후 업무추진부장, 이사, 상무 등을 거쳐 한빛증권 대표와 우리증권 사장 등을 역임했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소화제·변비약 등 일반약값도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소화제, 변비약 등 일반약값이 잇따라 인상될 조짐이다.

2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삼성제약은 마시는 소화제 '까스명수' 출하가를 7월부터 10%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또 간장약 '쓸기담' 등 일반약과 모기약 '삼성킬라' 제품군 가격도 10% 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은 최근 변비약 '돌코락스에스정'과 '돌코락스좌약'의 가격을 9% 올려 공급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염모제 '헤미닌'(동성제약)은 6월부터 10% 인상이 확정됐으며 '세븐에이트'는 7월중 10-15%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이밖에도 유명 일반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이 6월께 가격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